

# 김·신 악재에 靑이전 보류까지... “3년차 레임덕 막아라”

(김태우·신재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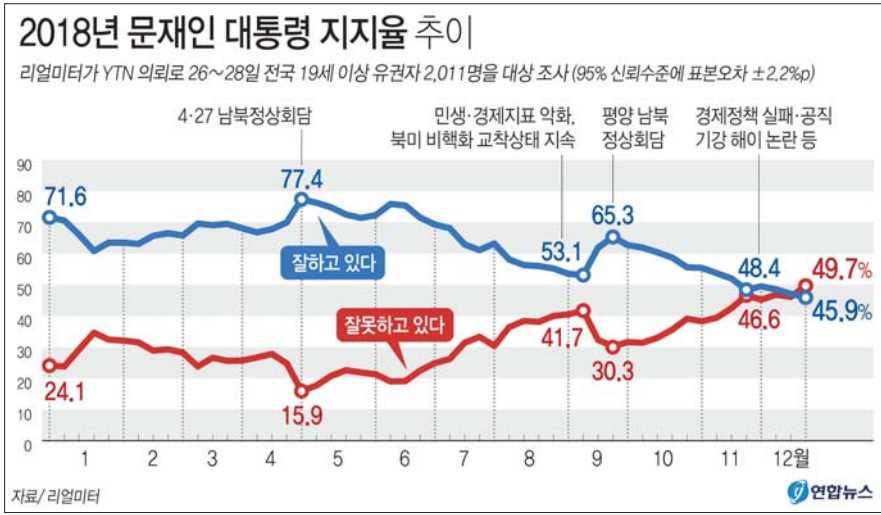
70%대 지지율 40%대로 급락  
문재인 정부, 참모진 개편 초읽기

“靑, 신년 대대적 인사개편 통해  
‘촛불민심 부응’ 초심 보여줘야”

새해 첫 달부터 청와대 주변 분위기가  
공공 얼어붙었다. 최근 김태우 전 청와대  
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 
사무관의 잇단 폭로로 문재인 정부 국정  
운영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상당하기 때  
문이다.

이로 인해 집권 초반 70%를 웃돌던 문  
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40%로 내려앉았  
다. 이런 와중에 대통령 핵심공약 중 하나  
인 ‘대통령직무실 광화문 이전’이 수포로  
돌아갔다. 청와대가 현재 직면한 다수의 논  
란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40%대  
지지율은 30%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.

6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선 청와대와 야  
당은 김태우·신재민 폭로를 놓고 대치전  
선을 형성 중이다. 지난해 12월 김 전 감  
찰반원은 ‘청와대의 민간인 사찰’을, 신  
전 사무관은 ‘청와대의 KT&G 사장 인선  
외압’ 및 ‘적자 국채 발행 강요’를 각각 폭



로했다.

이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 
지난 4일 긴급의원총회 때 “이제 문재인  
대통령이 (두 공무원 폭로에 대해) 답해야  
될 때”라고 압박했다.

야당 공세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와대  
는 ‘무대응’으로 일관하고 있다. 따라서  
연초에 있을 신년 기자회견 때 문 대통령  
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.

대통령직무실 광화문 이전 공약도 마  
찬가지다. 이 공약은 문 대통령이 지난  
대선 때 ‘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’

을 강조하기 위해 꺼낸 것이다. 하지만  
청와대는 지난 4일 ‘공약 불발’ 소식을 알  
렸다.

유홍준 대통령직속 광화문시대준비위  
원회 자문위원은 당시 춘추관에서 취재  
진과 만나 “현 단계에서 대통령직무실  
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한다면 청와대  
주요기능을 대체할 시설을 찾을 수 없  
는 결론을 내렸다”며 “따라서 대통령직무  
실 광화문 이전 및 청와대 개방 등은 장기  
적 사업으로 검토하기로 했다”고 밝혔다.  
이에 야당은 일제히 공세를 가했다. 박

근혜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낸 황교안 전  
총리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  
해 “문 대통령의 대표공약인 ‘광화문 대  
통령 시대 프로젝트’가 전면 보류됐다”  
며 “명백한 대국민 설명이 있어야 한다”  
고 밝혔다.

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역시 6일 자신  
의 페이스북을 통해 “문 대통령은 청와대  
에서 살아 본 분이 어떻게 저런 공약을 하  
나 했다”며 “지키려고 공약했다고 믿는 정  
치인도, 국민도 극소수였다고 생각한다”  
고 꼬집었다.

산업현장에서 연일 발생하는 ‘20대 노  
동자 사망’도 청와대 입장에서 악재다.

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 
3시15분쯤 팔탄면 인근 한 금속가공공장  
에서 고층 자동문을 설치하던 20대 청년  
이 사망했음을 6일 알렸다. 대안화력발전  
소에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  
하던 20대 청년 고 김용균씨가 사망한지  
26일만에 또 다른 비보가 나온 셈이다.

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  
일 브리핑을 통해 “지난 연말 김용균법 통  
과로 노동 현장의 안전에 보탬이 되도록  
했지만 더 면밀히 제도를 검토할 것”이라  
고 수습에 나섰다.

이와 관련 김영웅 민주당 교육연수원  
부원장은 6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 
“어떤 일은 현 정권 책임이고, 어떤 일은  
현 정권 책임으로 보기 어렵지만 종합하  
면 악재인 것은 분명하다. 자칫 야당에서  
제기하는 ‘집권 3년차 레임덕’도 무시할  
순 없다”며 “청와대는 신년에 맞는 대대적  
인 인사개편을 통해 ‘촛불민심에 부응하  
다’는 초심을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  
다. 그 인사개편에 따라서 올해 상반기 분  
위기가 좌우될 것으로 본다”고 밝혔다.

한편 문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 
참모진 개편에 돌입한다. 교체 대상자로  
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한병도 정  
무수석비서관,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  
관 등이 거론된다. 이번 참모진 개편 취지  
는 ‘집권 중반기에 따른 분위기 일신’이라  
는 게 정치권 전언이다.

임 비서실장 후임자로는 ‘노영민 주중  
대한민국대사관’이 유력하다는 후문이  
다. 제17·18·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노 주  
중대사는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린  
다. 그는 지난 2012년 대선 때 문 대통령  
의 대선후보 비서실장을, 지난 2017년 대  
선 때 문 대통령의 조직본부장을 각각 맡  
았다. /우승준 기자 dn1114@metrosool.co.kr

## 제조업체 23% ‘손실’... 9년만에 최대

통계청, 손실업체 전년비 4.2%p ↑  
순이익률 10% 기업 13%, 1.1%p ↓

국내 주요 제조업체 중 손실을 낸 기업  
의 비율이 2017년에 급격히 증가한 것으  
로 조사됐다.

6일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 결과를 분  
석해보니 조사 대상 제조업체 중 연간 순  
이익률이 0% 미만인 기업 비율은 2016년  
18.6%였는데 2017년 22.8%로 4.2%p 상  
승했다.

순이익률은 매출액 중 순이익이 차지하  
는 비율이며, 순이익률 0% 미만은 해당연  
도에 손실을 냈다는 것을 의미한다.

2017년 손실을 낸 제조업체의 비율은  
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24.7%  
를 기록한 이래 9년 만에 가장 높았다.

이와 대조적으로 순이익률 10% 이상  
을 기록한 제조업체의 비율은 2016년

14.1%에서 2017년 13.0%로 1.1%p 하락  
했다.

순이익률 10% 이상인 제조업체의  
비율은 2014년 12.0%를 기록한 후 3년 만  
에 가장 낮은 수준이 됐다. 주력 산업 구  
조조정 등이 제조업체의 실적 악화에  
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.

실제로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 운송장  
비 제조업체에서 손실을 낸 기업(순이익  
률 0% 미만 기업)의 비율은 2016년 29.7%  
였는데 2017년 38.1%로 치솟았다.

반면, 반도체 산업 등은 호황을 누렸  
다. 반도체 산업이 포함된 ‘전자부품, 컴  
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’은  
순이익률 10% 이상인 기업의 비율이  
2016년 12.2%에서 2017년 13.9%로 상승  
했다.

자영업자 등이 다수 종사하는 숙박 및  
음식점업은 업황이 극도로 악화한 것으  
로 파악됐다. /세종=최신웅 기자

이 업종에서 손실을 낸 기업의 비율은  
2016년 42.7%에서 2017년 47.4%로  
뛰었다.

통계청이 기업활동조사 통계를 제공하  
는 2006년 이후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손  
실을 낸 기업의 비율은 2017년이 가장 높  
았다.

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(THAAD·사  
드)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의 관계  
가 악화한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 
급격히 감소한 것이 숙박 및 음식점업의  
경영에 타격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.

기업활동조사는 국내에서 산업 활동을  
하는 회사법인 중 상용근로자 수가 50인  
이상이고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인 기업체  
를 상대로 한다.

다만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, 기타 서비  
스업은 상용근로자 50인 미만인더라도  
자본금이 10억 이상인 경우 조사대상에  
포함한다. /세종=최신웅 기자 grandtrust@



‘닭고기 가격’이 이렇게 올랐나?

겨울로 접어들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닭고기  
가격이 새해에도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  
다. 6일 서울 노원구 상계중앙시장의 닭전문점에서  
사람들이 생닭을 사고 있다. /연말뉴스

## 통계청, 농축수산물 물가 3.7% 급증

생강 66% 올라 상승률 최고치

2018년 먹거리 물가가 전체 물가 지표  
의 안정된 흐름과는 달리 농축수산물을  
중심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  
타났다.

외식물가에서는 도시락·갈비탕·김밥·  
떡볶이·짬뽕 등 평하게 사먹는 음식의 가  
격 상승 폭이 컸고, 빵·삼각김밥·즉석식  
품 등 한 끼를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 일  
부 가공식품 물가도 들쭉였다.

6일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소비  
자물가지수는 전년보다 1.5% 상승하  
는데 그쳤지만 농축수산물은 전년 대비 3.

7% 상승하며 강한 오름세를 보였다.

특히, 농축수산물 73개 품목 중 24개 품  
목은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고, 전체  
물가상승률 보다 높이 오른 품목도 44개  
에 달했다.

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품목은 생강으  
로, 전년보다 66.0%나 뛰었다. 2001년  
(117.2%) 이후 17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  
었다.

생강 물가는 2년 연속(2016년 -23.8%,  
2017년 -23.3%) 큰 폭 하락했지만 작년  
에는 여름철 폭염으로 생산량이 급감하  
며 폭등한 것으로 분석된다. /세종=최신웅 기자

## 노동부, 미세먼지 대응 건강 지침서 마련

고용노동부는 장시간 바깥에서 일하는  
노동자를 위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 
지침서를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.

앞서 노동부는 2017년 12월 미세먼지·  
황사 경보 발령 시 마스크 지급 등을 사업  
주 의무사항으로 하는 내용의 ‘산업안전  
보건기준에 관한 규칙’을 개정·시행한 바  
있다.

이번 지침서는 환경부의 미세먼지 특  
보 발령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노동자에  
대한 건강보호 조치를 준비하고 이행할  
수 있도록 한 것이다.

이에 따라 지침서는 미세먼지 농도 수  
준을 평상시인 사전준비 단계와 환경부  
특보기준에 따른 주의보와 경보 단계로  
구분해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.

먼저 사전준비 단계에서는 미세먼지  
민감군 확인, 비상연락망 구축, 마스크 쓰

기 교육 등을 해야 한다.

민감군이란 미세먼지 등에 영향을 받  
기 쉬운 사람으로 폐질환자나 심장질환  
자, 고령자, 임산부 등을 말한다.

주의보 단계에서는 경보발령 사실을  
알리고, 마스크를 지급해 쓰게 해야 하며,  
민감군에 대해서는 종작업을 줄이거나  
휴식시간을 추가로 주어야 한다.

마지막으로 경보 단계에서는 자주 쉬  
게 하고, 종작업은 일정을 조정해 다른 날  
에 하거나 작업시간을 줄여야 한다.

노동부는 이번엔 마련된 미세먼지 지  
침서가 현장에서 빠르게 활용될 수 있  
도록 관계부처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 
유관단체, 사업장 등에 배포하는 한편,  
사업장별로 자체 관리계획을 마련해 소  
규모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를 하도록 적  
극 지도할 방침이다. /세종=최신웅 기자

## 석면관련 위반업체 처벌 강화 노동부, 산업안전보건법 시행

고용노동부는 이달 1일부터 산업안전  
보건법을 위반한 석면조사기관과 석면해  
체·제거업자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대  
폭 강화하는 ‘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’  
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.

시행규칙은 석면조사기관이 석면조사  
누락 등 조사방법을 위반하면, 기존 1차  
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처분하던 것을  
업무정지 6개월 처분하도록 했다.

또한 석면해체·제거업자가 작업 기  
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, 최근 1년간  
벌금 이상 형의 선고를 3회 이상 받았을  
때만 등록취소했지만 이제는 한번만  
받아도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  
고, 2회를 받으면 지정취소 처분까지  
하게 된다. /세종=최신웅 기자

## 복지부 월 소득 510만원 부부도 ‘난임시술’ 지원

올해부터 월 소득이 510만 원대인 부부  
도 정부로부터 난임시술비를 지원받을  
수 있다. 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 치료비  
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  
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에  
대해 종전보다 지원을 확대한다고 6일 밝  
혔다. 난임시술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  
득(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 
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) 130%

이하에서 180% 이하로 확대된다.

지난해 2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 
130%는 370만원, 180%는 512만원이  
어서 난임부부의 월 소득이 512만원 이  
하라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. 지원  
회수도 늘어난다. 기존에는 체외수정 4  
회만 지원했으나, 올해부터는 신선배아  
체외수정 4회, 동결배아 체외수정 3회,  
인공수정 3회 등 모두 10회 지원한다. /이  
세경 기자 selee@